

불 같은 시험을 넘어서 창세기 39:7-23

장애물 넘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하나 지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감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모함을 받거나, 자신의 뜻이 오해받아 일어나는 상황에서 고난을 겪을 때 곤혹스럽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스스로에 의해서 일어났다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불 같은 시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가는 과정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17세 때부터 나이에 맞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첫번째로 겪어야 했던 장애물은 형들의 미움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은 먼 곳에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늘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심각한 갈등은 가족, 혈연관계, 특히 교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데 각자의 미숙함으로인해 갈등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격심한 신분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인간을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할 일이 마땅치 않습니다.

요셉은 이런 변화를 겪었지만 어린시절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는 어려움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과정에 얽매어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쉽게 넘어갑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다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이 닦쳐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설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결국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총무가 되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게 됩니다. 그는 주인의 동역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유혹의 눈짓

6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무렵 요셉의 나이는 10대를 넘어서서 20대 중반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요셉은 어린시절부터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균형잡힌 청년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요셉을 보며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인 유혹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도 젊고 용모가 뛰어났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더구나 남편인 보디발이 바로의 경호실장이었으니 권력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매력적인 요셉을 유혹해서 성적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를 보고있는듯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혼외정사와 동성연애는 이런 성적 타락의 심각한 면을 보여줍니다. 동성연애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27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연애의 저주는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쓰였던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생각해보면 죄는 발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 때나 지금의 죄나 죄의 농도와 형태는 같습니다. 죄가 더 크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인류사의 가장 큰 저주는 동성연애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미 미국은 동성연애를 용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바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이즈를 천벌로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타락이 주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10가지 죄의 형태

죄의 형태는 십계명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의식에 눈을 뜨는 것은 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눈을 뜨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를 저지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한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나쁜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낸다든지, 동생이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고 든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이르면 성적인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사람이 저지러 수 있는 죄의 유형은 십계명을 통해 보면 10가지 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점을 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인간 내면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싶어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식일을 범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죄의 본성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것, 살인의 본능, 간음의 본능, 도적질에 대한 본능, 거짓말, 탐욕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본성 중에서 인간 중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간음에 대한 본능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유혹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먼저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혹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갔다가 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세상이 우리를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라

요셉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요셉은 20대 후반의 젊은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젊고, 매력적이었고 영향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처한 환경은 이 여인의 요구에 응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보다도 더 크게 겪어야 했던 인생의 시련이었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축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반응은 한 마디로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위기에 처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방법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혹에서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성적 매력이 없었다거나 그녀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비결은 마음의 의지,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우리는 죄인줄 알면서 짓는 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짓습니다. 어떤 제재의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가 죄를 거부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거부한 이유는 3가지 입니다. 우선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그 유혹 자체가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번째의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 단 한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유혹을 거절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 세상에서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매번 거부하는 우리의 의지적 결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유혹은 날마다 강도가 세집니다. 요셉은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을 피합니다. 이것도 죄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의지적인 결단을 갖지 않았다면 이즈음에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13~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인은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분노하여 복수의 칼을 내뱉는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씹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손에는 자신이 놓아두고 간 옷이 있고 도망치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서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반항하고 항거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녀를 비난하여 곤경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넘치는 복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남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모함과 비난을 이겨냅니다. 그가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모함과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고통을 느낄 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고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 중 ‘사랑은 오래참고’라는 말을 생각해봅시다. 믿음의 정의 가운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도 생각해 봅시다. 기다릴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갖는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연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좌절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실망이 오며 분노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기가 10달을 채우고 세상에 나와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은 계획과 때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여러분을 연단시키며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한을 품지 않았습시다. 여러분도 한을 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문제 중 하나는 한입니다. 우리는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인자,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고 전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당장 옥에서 빼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상황과 같은 일이 감옥에서도 일어납니다. 좋은 환경에 가서 요셉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 좋은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환경에서 나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환경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만사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만사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우리를 영광중에 두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안해 했던 것, 두려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불 같은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